DAOL 다올투자증권

Market Weekly

# check ME up!

Macro

Event

2026년 1월 3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Ⅰ. Weekly Review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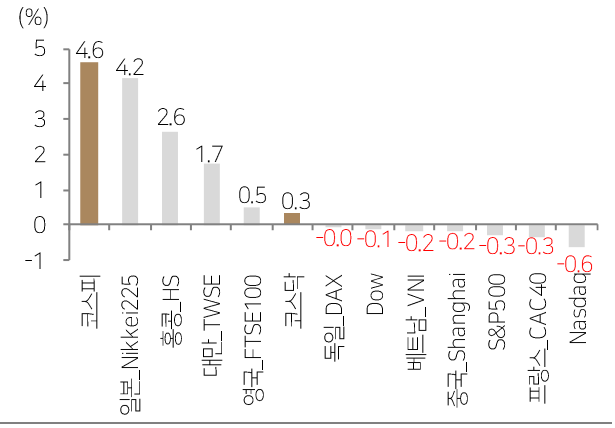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3p*

Ⅲ.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Ⅳ.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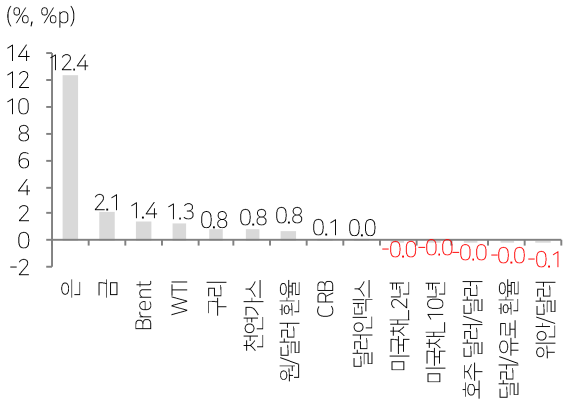
# I . Weekly Review

##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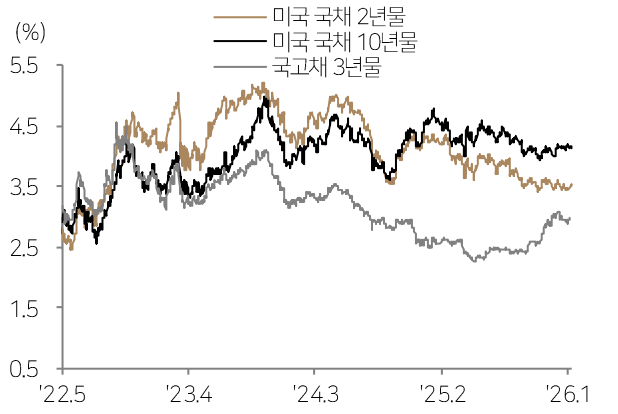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2/12일 대비 12/18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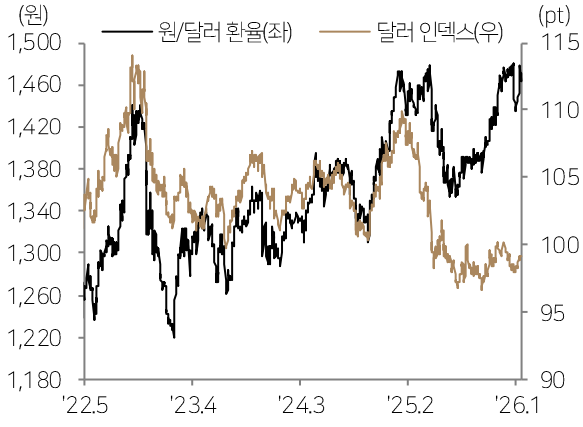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2/12일 대비 12/18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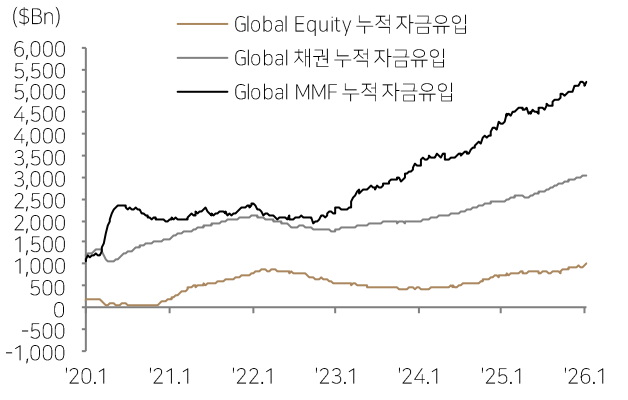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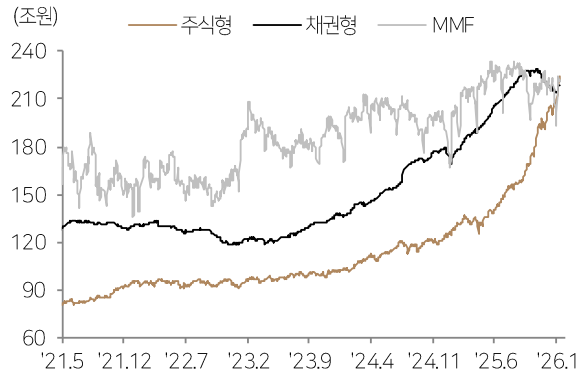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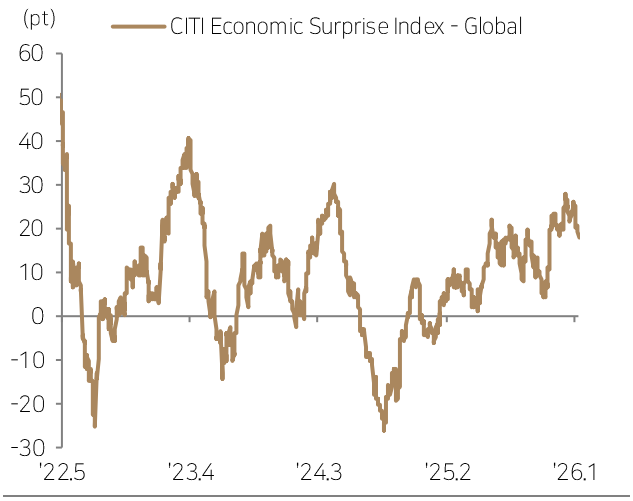
# Ⅱ. 경제지표 Preview

- 일본 12월 CPI가 발표될 예정. BOJ는 지난 12월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아직까지 인상 경로가 마무리됐다는 시그널은 주지 않고 있는 상황. 기본 전망은 연속적인 금리 인상보다 상반기 춘투에서 임금 협상 수준 및 실질 임금의 상승 여부를 확인하고 연 중반 인하를 모색하는 경로.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은 금리 경로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부를 살펴 볼 필요
- 10일까지의 잠정 수출은 -2.3% 감소. 당초 연말 수출 호조와 25년 연초의 낮은 기저 조합으로 강한 수출 모멘텀을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부진해 보이지만, 일평균 계산 시 +4.7% 증가. 특히, 반도체의 경우 +45.6%로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총액 기준 월 중반 이후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20일 잠정치 확인 필요

| 일자 | 국가/지역 | 일정 및 이벤트 | 단위 | 예상치 | 이전치 |
|---|---|---|---|---|---|
| 2026-01-19 | 유럽 | 12월(최종) 소비자물가지수 | %yoy | - | 2.0 |
| 2026-01-19 | 중국 | 4분기 경제성장률 | %yoy | 4.5 | 4.8 |
| 2026-01-19 | 중국 | 12월 소매판매 | %yoy | 1.1 | 1.3 |
| 2026-01-21 | 한국 | 1월 20일까지 수/출입 | %yoy | -/- | 6.8/0.7 |
| 2026-01-22 | 미국 | 10월 건설지출 | %mom | 0.1 | - |
| 2026-01-22 | 한국 | 4분기(1차) 경제성장률 | %qoq | - | 1.3 |
| 2026-01-22 | 미국 | 3분기(3차) 경제성장률 | %qoq | 4.3 | 4,3 |
| 2026-01-22 | 미국 | 3분기(3차) 근원 PCE 물가지수 | %qoq | - | 2.9 |
| 2026-01-22 | 미국 | 12월 미결주택매매 | %mom | - | 3.3 |
| 2026-01-23 | 일본 | 12월 소비자물가지수 | %yoy | 2.2% | 2.9 |
| 2026-01-23 | 미국 | 1월(잠정) S&P글로벌 제조업 PMI | Index | - | 51.8 |
| 2026-01-23 | 미국 | 1월(잠정)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 Index | - | 52.5 |
| 2026-01-24 | 미국 | 1월(최종)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 Index | - | 5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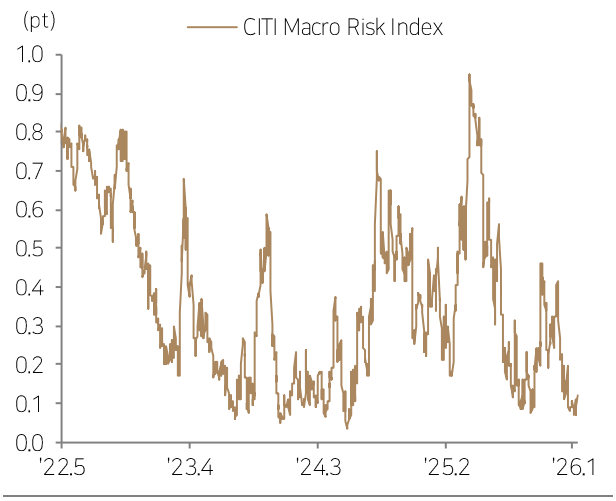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 일자 | 국가/지역 | 중요도 | 일정 및 이벤트 | 내용 |
|---|---|---|---|---|
| 01/19 ~23 | 글로벌 | 상 | WEF 다보스포럼 | ▪ 창립자 클라우스 슈밥 퇴진 후 첫 총회로 01/19~23일 스위스 다보스서 '대화의 정신'을 대주제로 56차 연차총회를 개최할 예정<br>▪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6년 만에 직접 방문해 연설할 예정 |
| 01/22 | 미국 | 상 | 인텔 실적발표 | ▪ 현지 시간 22일 인텔의 실적발표가 예정.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전고점 회복. CPU 숏티지를 기반으로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가 존재. 실적 자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발표 이후 셀온 여부가 관심 |
| 01/22 ~23 | 일본 | 상 | BOJ 금융정책회의 | ▪ 1월 22~23일 양일 간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 진행 예정. 올해 1월 0.5%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6차례 연속 동결. 12월 회의에서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 일본의 기준금리가 0.5%를 넘어선 건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정책위원 9명 전원이 금리 인상에 찬성<br>▪ 우에다 총재는 "물가가 2%라는 상승률 목표에 부합하는 추이를 계속 보인다면 금융 완화를 조정할 것"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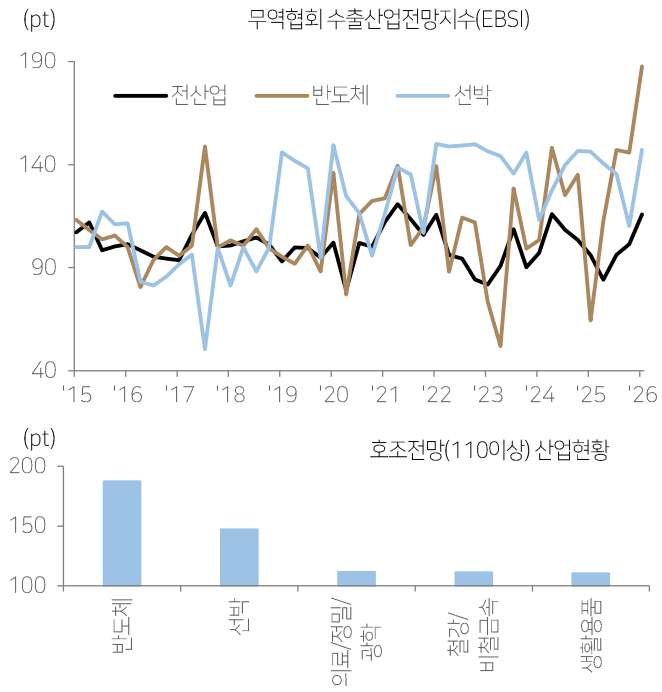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 일자 | 내용 |
|---|---|
| 금주 (01/12~01/15) 증시 동향 | ▪ KOSPI(+4.6%), KOSDAQ(+0.3%) 상승. KOSPI는 상사/자본재(+10.5%), 조선(+9.8%), 반도체(+9.5%) 업종이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비철/목재(-4.3%), 화장품/의류/완구(-4.1%), 호텔/레저서비스(-3.4%) 업종 등이 하락. 주초 메타의 대규모 원자력 계약과 CES 모멘텀으로 원전과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며 4,600pt선을 돌파. 이후 로보틱스 기대감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자동차와 방산 업종까지 매수세가 확산되며 상승폭을 확대. 주 후반 정부 원전 정책 및 상법개정안 이슈,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조선 수주 등 호재까지 더해지며 4,800pt선에 근접<br>▪ DOW(-0.1%), NASDAQ(-0.6%), S&P500(-0.3%) 상승. 파월 의장 수사 소식에 따른 변동성에도 상승 출발했으나, 트럼프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 추진에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고, 이란 지정학적 우려 및 엔비디아·오라클 개별 악재가 겹치며 소폭 하락. 주 후반 TSMC가 역대 최대 실적 및 양호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종 랠리가 재개되는 국면 |
| 차주 (01/19~01/23) 증시 전망 | ▪ 기존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연초 증시 랠리가 이어지고 있음. 다시 상승하고 있는 환율, 기대와 사뭇 달랐던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 미 연준의 1월 금리 동결 가능성 등 악재성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요인들도 존재하고 있지만, 견고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존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는 강화 중. 미국 Fear&Greed 지수와 같은 심리지표도 이제 막 greed 영역에 진입하는 수준. 심리 과열 평가를 하기도 어려움<br>▪ 언급한 바와 같이 1월 FOMC에서 미 연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시장은 6월에나 다음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어차피 예방적 금리인하 기조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횟수를 빨리 소진하는 것 보다 인하 기조를 연장하는 것이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1월 금리 동결이 큰 부담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 전략 기조는 기존과 다르지 않음. 반도체 주가 상승이 빨랐다고는 하나 이익 증분 대비 부담이 크지 않음. 주도주 지위를 놓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 반도체의 상승탄력 둔화 구간에서의 대안도 조선, 방산 등을 위시한 실적 전망 상향 업종 내에서 선별이 바람직 |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 Ⅳ.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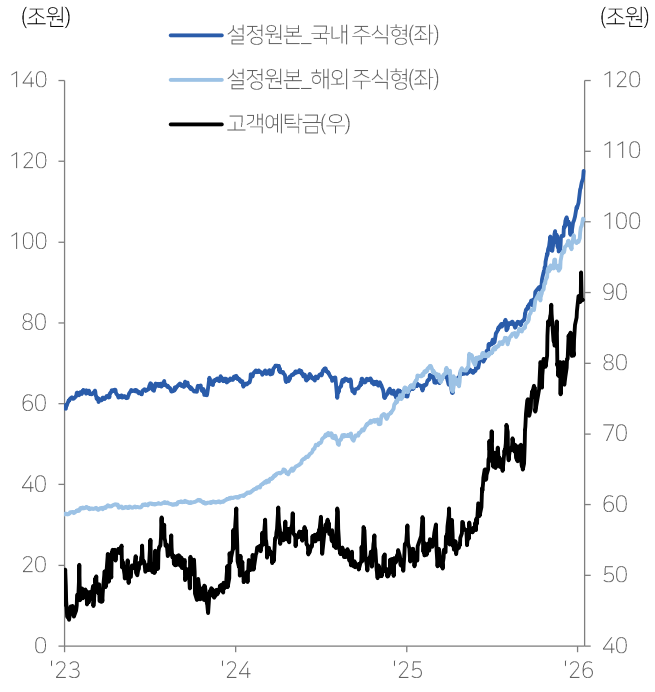
##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도체 수출 전망지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조선




Source: 국제무역연구원, 다올투자증권

- 전일 금통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부문에서 상반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거듭 언급되고 있음. 산업계에서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전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집계하는 수출산업 전망지수(EBSI)가 1분기 115.8pt를 기록하며 7분기 만에 기준선인 110pt를 상회. 25년 2분기 저점을 확인한 뒤,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방향성을 보이고는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기준점을 넘어선 것은 상당히 오랜만의 상황, 1분기 두자리수 수출 증가율을 기대하고 있는 당사 전망 기대를 높여주는 소재
- 업종 측면에서 헤드라인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단연 반도체. 반도체의 1분기 전망지수는 187.6pt로 최대 200pt로 설계된 동 지수의 최상단부 위치. 기존 반도체 슈퍼사이클 2017년 당시 고점이 148pt대였으며, 이를 크게 상회. 이 외에는 조선, 의료기기, 철강/비철금속, 생활용품(화장품, 의약품 등) 같은 항목들이 포함

## 가파른 속도로 재유입되고 있는 내부 증시유관 자금들




Source: Quantiwise, 다올투자증권

- 결국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급상 뒷받침이 담보될 필요가 있음. 특히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며 내부 수급이 추세성을 가지기 시작할 때의 파급력은 상당히 컸던 경험이 많음
- 주식형 펀드 플로우를 보면 전반적 자금 유입은 반가운 일이었으나, 24년말~25년 초 해외 투자 열풍이 불며 국내 주식형 설정원본을 해외 주식형이 넘어섰던 경우도 있음. 그러나 지난 해 하반기 이후 국내 주식형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특히 연말 이후로는 해외주식형과의 속도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물론 해외 직접 투자 증가 영향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이 추세화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 현재 국내 설정원본 잔액은 117.6조원
- 고객 예탁금도 연말 부침을 경험했지만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12월 초 조정 과정에서 70조원대까지 줄어들었던 예탁금은 재차 90조원 부근에서 형성 중. 일단 변동성 큰 해외 자금 유출입과 별개로 내부 자금들의 확충이 진행되어 있다는 점은 고무적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